



‘별들의 잔치’ 2019 KBO 올스타전 행사가 19일부터 이틀간 창원NC파크에서 열린다. 5호 태풍 다나스 북상의 영향으로 원활한 일정 진행이 불투명하지만, KBO와 선수단은 팬을 위한 멋진 퍼포먼스를 다짐했다.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기념촬영 중인 선수단. 스포츠동아DB



2008년 올스타전 시구자로 나선 영화배우 김혜수

역대 올스타전 시구의 추억

초창기엔 여배우 섭외 1순위 박찬호 공 받은 선배 김경문 은퇴선언 이승엽 아들과 함께

별들이 모이는 올스타전인 만큼 시구자의 이름값이나 의미 역시 남달랐다. 베일에 싸인 시구자는 2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리는 올스타전 이모저모 중 적잖은 관심이 쏠리는 대상이다.

10일(한국시간) 열린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의 시구자는 C.C 사바시아(뉴욕 양키스)였다. 클리블랜드에서 데뷔한 뒤 올 시즌 후 은퇴가 예정된 ‘레전드’ 투수의 시구에 팬들은 감동을 보냈다. 시구를 마친 사바시아는 9회 경기 종료 직전 마운드에 올라 ‘일일 투수코치 체험’을 하기도 했다. 클리블랜드 프로그래서브 필드를 가득 채운 팬들은 사바시아에게 짐승이런 박수를 보냈다.

KBO리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4년과 2015년이 첫손에 꼽힌다. MLB와 일본프로야구를 호령한 뒤 고향팀 한화 이글스에서 2012년 한 시즌을 뛰 뒤 은퇴한 ‘코리아 특급’ 박찬호는 2014년 올스타전에서 은퇴식을 치렀다. 공주고 선배이자 당시 NC 다이노스 지휘봉을 잡았던 김경문 감독이 그 공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해태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한화를 거쳐 1554승을 거두며 KBO 최다승 감독으로 남아있는 김용용 감독이 마운드에 올랐다. 후배 감독들의 의기투합으로 결정된 깜짝 시구였다.

2017년 올스타전의 주인공은 이승엽이었다. 개막을 앞두고 은퇴를 선언한 그는 KBO리그 최초로 ‘은퇴투어’를 치렀다. 아들 은혁, 은준군이 나란히 시구와 시타자로 나섰다, 이승엽이 시구자로 나섰다.

최근에는 이처럼 야구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이들이 마운드에 오르는 추세이지만, 프로야구 초창기에는 연예인 시구가 많았다. 원년 올스타전의 ‘여배우 트로이카’ 이경진~정애리~정윤희부터 2008년의 김혜수까지 당대의 별들이 올스타전을 찾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마운드에 오른 사례도 있다. 개최지의 도지사나 시장이 일곱 차례 시구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뜸해졌다. 대통령의 올스타전 시구는 200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역대 3번째 ‘투수 미스터 올스타’ 가능성은?

37번 올스타전 중 김시진·정명원뿐 김광현·윌슨, 길어아 2이닝 던질듯 중간·마무리·승부처 등판투수 유리 LG 루키 정우영·SK 하재훈 도전장

‘야구는 투수 놀음’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지난 해까지 37차례 열린 KBO 리그 올스타전에서 투수가 ‘미스터 올스타(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것은 단 두 차례뿐이었다. 불멸의 투수 고(故) 최동원, 국보급 투수 선동열, 그리고 류현진(LA 다저스)도 올스타전 MVP를 수상한 적이 없다.

투수들은 베스트 선수로 뽑혀도 올스타전에 뽑힌 다른 투수와 함께 마운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없다. 그만큼 강렬한 모습을 보여 줄 기회가 많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투구 이닝이 더 줄어들어 투수 MVP 탄생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역대 단 두 명밖에 없는 투수 MVP의 주인공은 김시진 현 야구국가대표팀 기술위원장과 정명원 KT 위즈 코치다.

삼성 라이온즈 김시진은 1983~1985년까지 3년 연속 동군 투수 ‘베스트10’에 뽑혀 선발 등판했다. 1985년 올스타전은 3연전으로 치렀다. 그만큼 투수들에게 기회가 많았다. 김시진은 2경기에 등판 6이닝

1안타 5삼진 무실점으로 활약하며 MVP가 됐다. 1985년 김시진은 페넌트레이스에서 269.2이닝을 던져 25승을 거두며 삼성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한해였다.

마지막 투수 MVP인 정명원은 1994년 태평양 돌핀스 유니폼을 입고 서군 구원 투수로 8회 마운드에 올랐다. 연장 10회까지 3이닝 동안 3연속 삼진 등 퍼펙트 투구를 하며 MVP를 수상했다. 정명원 역시 1994년 커리어 최다이저 당시 역대 시즌 최다 기록인 40세이브를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했다.

2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은 전반기 최고의 활약을 펼친 SK 와이

번스 김광현(드림 올스타)과 LG 트윈스 타일러 윌슨(나눔 올스타)이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모두 충분한 휴식을 갖고 올스타전 마운드에 오른다.

올스타전에서 선발 투수는 1이닝 혹은 길어아 2이닝을 던질 예정이다. 역대 3번째 투수 MVP가 탄생한다면 중간과 마무리 투수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이유다.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 등판해 완벽한 투구를 한다면 충분히 미스터 올스타가 될 수 있다. LG 신인투수 정우영도 중간투수로 ‘베스트12’에 뽑혀 생애 첫 올스타전을 앞두고 있다. SK 마무리 하재훈도 마무리투수 ‘베스트12’에 뽑혀 MVP에 도전한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동료 송지만 MVP 도운 ‘구대성 끝내기 폭투’

역대 올스타전 인기명기

투수 강백호 작년 150km 삼진쇼

‘별들의 축제’로 불리는 KBO리그 올스타전에선 색다른 시도들이 빈번하게 이뤄진다. 타자가 투수로 변신해 마운드에 오르거나 경기 도중 독특한 세리머니로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드는 식이다. 때론

평소에는 보기 드문 흔치 않은 장면도 탄생한다.

한화 이글스의 레전드 투수 구대성은 2000년 제주도에서 열린 올스타 2차전에서 끝내기 폭투를 기록했다. 당시 팀이 4-3으로 앞선 9회 2사 만루에 마운드에 올랐는데 타석에 들어선 홍성흔을 상대로 폭투 2개를 범했다. 승부는 순식간에 뒤집어졌고 구대성이 속한 매직리그는 4-5로 졌다. 하지만 구대성은 낙담하는 대신은

근한 미소를 지었다. 이를 두고는 ‘홍성흔의 끝내기 안타 기회를 막아 소속팀 동료 송지만의 최우수선수(MVP) 수상을 돕기 위함이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시간을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예기치 못한 불상사도 있었다. 1988년 잠실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동군은 연장 11회 승부 끝에 서군에 9-8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MVP는 서군에서 나왔다. 발목 부상을 안고도 연장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한 한대화였다. 하지만 격분한 동군 선수들은 시상식 참가를 거부했다.

축제의장에서 뛰어난 쇼맨십을 선보이는 선수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홍성흔은 2009년 올스타전에 금발 가발을 쓰고 나타났다. 그는 당시 범택로 물러났지만 가발을 벗어던지는 과장된 행동으로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KT 위즈 강백호는 데뷔시즌이었던 2018년 올스타전에서 놀라운 ‘삼진쇼’를 펼쳤다. 소속팀에서 줄곧 타자로만 활약했던 그는 0-5로 밀리던 6회 구원 등판해 0.2이닝을 2삼진을 기록했다. 직구 최고 구속 150km에 이르러 놀라움을 더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김용희 ‘맴시’ 박정태 ‘황금볼’…올해는 ‘K7’

(1982년) (1999년)

MVP 부상도 세월따라 변화

올스타전의 역사는 MVP와 항상 함께 했다. 별들의 잔치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부상이 전해졌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그 해 올스타전 MVP는 롯데 자이언츠 소속이었던 김용희였다. 당시 올스타전은 3일에 걸쳐 열렸는데 김용희는 13타수 4안타(3홈런) 7타점을 기록하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부상으로 당시 새한자동차의 소형차인 ‘맴시’를 받았다.

자동차는 올스타전 부상으로 가장 많이 지급된 상품이다. 37차례 중 27번이 자동차였다. 그 외에는 황금볼, 황금배트, 그리고 현금과 TV가 상품으로 등장했다.

황금볼을 처음으로 받아든 스타는 1999년 롯데 소속의 박정태였다. 4타수 2안타(1홈런) 3타점의 성적으로 20년중 황금볼을 획득했다. 이후 2000년에는 한화 이글스 송지만이 20년중 황금배트를, 2001년에는 두산 베어스 타이론 우즈가



올스타전 MVP, 이른바 ‘미스터 올스타’는 명예와 더불어 과거의 부상까지 손에 넣게 된다. 올해는 고급 세단 K7 프리미어의 지급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미스터 올스타에 선정된 뒤 부상으로 받은 K5 승용차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하성(기울). 스포츠동아DB

마찬가지로 20년중 황금배트를 받았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현금과 TV

가 부상으로 나왔다. 2004년까지는 현금 1000만 원과 전집됐고, 2005년부터는 현금 1000만 원과 삼성 PAVV TV가 함께 주어졌다.

2009년부터는 다시 자동차의 시대가 열렸다. 포르테 쿵, K5, 스텔러 등 KIA의 다양한 자동차들이 올스타들의 품에 안겼다. 자동차 위에서 MVP 포즈를 취하는 명장면도 다시 부활했다.

2019년에도 MVP에게는 자동차가 선물된다. KIA의 ‘K7 프리미어’가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올스타 행사 중 하나인 ‘홈런 레이스’ 부상으로는 상금, LG 트롬 스타일러, 공기청정기가 증정된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태풍 다나스야, 창원만은 제발 피해 가렴!

19일 퓨처스 올스타전 취소되면 20일 12시에…올스타전 오후 6시 20일까지 비내리면 일정도 꼬여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빠르게 북상 중이다. KBO도 다나스 때문에 고민이다.

창원NC파크에서 19일 오후 6시 예정된 올스타 프리미어(퓨처스 올스타전 및 홈런 레이스 예선)와 20일 오후 6시 시작될 올스타전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창원 지역에는 20일 오후까지 강한 비가 예보돼 있다. 19일에 강한 비로 진행

이 어려운 경우 대부분 행사는 20일로 연기된다. 20일 낮 12시에 퓨처스 올스타전을 치르고, 오후 6시 올스타전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홈런 레이스 예선전도 규모 축소 등을 해서라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20일까지 비가 내릴 경우 문제가 커진다. 이 경우 퓨처스 올스타전은 자동 취소되며 본 경기는 21일 오후 6시로 연기된다. 다만 팬들이 직접 참여하

는 ‘슈퍼레이스’ 등의 운영이 복잡해진다. KBO 관계자는 18일 “올해는 여러 모로 준비를 많이 했다”며 염려의 목소리를 냈다. 올스타전의 우선 취소 사례는 1983년이 유일하다. 당시에는 올스타전 세 경기를 치렀고, 남은 두 경기는 정상 진행했다. 전체 경기가 취소된 사례는 없는 셈이다. KBO는 “역대 최초 강우 플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익래 기자